학술특집 시베리아관 개관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한민족은 북방에서 남하했다"

한국민속과 북방대륙민속의 친연성

어 논고는 한국민속과 북방대륙민속의 친연성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민속과 한민족의 근원을 탐색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한민족의 북방기원이 전제되어, 민속학 외에 고고학·역사학·언어학·민족학·인류학 등 인접학과의 제휴가 필요해 잠정적으로 민속학 내지 민족학(Ethnology)적 시학을 통해서 본다는 제한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머리 밝혀둔다.

이 논고의 기초가 된 자료는 필자가 1960.8.에서 1993.10. 현재까지 한국내의 민속현장을 조사한 자료와 국외 자료로는 1974.7.-1993.8. 사이에 일본, 대만, 중국, Mongol, Siberia 등지 민속현장을 조사한 자료이다. 국외 조사지역은 다음과 같다.

일본 구주의 대마도, 대기도 (1974.7.24-8.6)

일본 구주의 평호도. 대도(1976. 8.6-10)

대만의 대북시, 대남시 주변 (1982.6.24-7.2)

중국내 몽골의 Ordos지역(1990. 7.26-7.30)

Mongol의 Ulanbator 주변과 Hupsikul(1990.7.31-8.6)

Sibera Yakubia의 Yakutsk 주변과 Maanday, Kutana, Namyugin지역(8.11-8.22)

Siberia의 Yakutsk 주변과 Soltinsky Tattinsky 주변(1992.12)

Siberia Habaronvsk Amuru 강주변(1993.2)

Siberia Yakutia의 Yakutsk 주변 (1993.7.23-8.6)

자료 구하기 어려워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은 민속학과 민족학의 기반위에서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역사학 등의 성과를 수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편의 논문에서 한국 민속 전반과 북방대륙민속 전반의 친연성을 검증하기가 어렵고, 또 광대한 시베리아 전역의 민속현상을 대상으로 하기도 어려워서, 이 논고에서는 그중만 필자가 답사한 몽골과 중앙시베리아인 Yakutia(sakha)의 민속종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속과의 친연성을 논의한다는 자료상의 제한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런 제약성이 있으면서도 한국과 북방대륙 민속의 친연성을 중심으로 민속과 한민족의 근원을 탐색하려는 것은 중앙시베리아인 Yakutia가 서아시아로부터 서시베리아를 거쳐 동시베리아로 이어지는 시베리아의 중심부이고 또 그런 중앙시베리아인 야쿠티아가 남으로 Mongol과 맞닿아 몽골로부터 다시 한반도로 이어지는 지리, 역사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속의 친연성을 논의하는 기점은 한국민속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기층문화소로 꼽히는 서낭당, 장생, 솟대, 가신인 성주, 조왕, 무속, 점, 馬信仰, 강강수월래, 정낭, 등을 대상으로 삼아 북방 대륙 민속과의 친연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태와 기능 비슷해

1. 한국의 서낭당과 몽골의 Ovoo, 야쿠티아의 Arimamas 신앙이 신수에 오색의 천조각을 잡아매고 여기에 누석단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 기능 역시 마을의 수호와 여행의 안전, 풍요여서, 이들 3자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형태와 기능이 매우 酷似하다.

2. 한국의 장생과 몽골의 Hunchero, 야쿠티아의 Emeget가 대략 2m 내외의 통나무나 석주로 사람의 얼굴과 몽뚱이를 조각해 마을로 들어가는 길 옆에 세우고 마을의 수호,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어서 이들 3자는 형태와 기능이 매우 흑사하다.

◇에메겟(Emeget) 길가에 서서 마을을 지켜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한국의 장승과 흡사하다.

민속전파경로, 야쿠티아→몽골→한반도

"한반도 북방문화권"…언어학등이 뒷받침

3. 한국의 솟대신앙과 야쿠티아 Guwagata신앙이 4-5m길이의 목간위에 나무로 50-100cm길이의 오리를 조각해 앉힌 것을 동구에 세워 마을을 수호하거나 또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사자로 믿어, 이 양자가 형태와 기능이 매우 흑사하다. 솟대신앙과 유사한 입간(立竿)·조간(鳥竿) 신앙의 흔적이 내몽골과 만주지역에도 발견된다.

4. 한국의 성주신앙과 몽골의 Borkhan, Iihichi신앙이 최고의 가신이면서 가족을 보호해주고 풍요와 행운을 주는 가신으로, 이 3자는 형태와 기능이 매우 흑사하다.

5. 불을 관리하는 한국의 조왕신앙과 야쿠티아의 Word Iihichi신앙이 가족을 보호해 주며 행운을 주는 화신신앙으로, 이 양자는 신앙형태와 기능이 매우 흑사하다.

6. 한국의 무속과 몽골의 Saman신앙, 야쿠티아의 Oyun·Udagan신앙이 Ecstasy, 동경, 방울 등의 형태와 기능이 매우 흑사하다.

7. 한국의 강강수월래, 몽골의 Burubotosuhuha, 야쿠티아의 Osuohai 춤이 많은 사람들이 손과 손을 서로 연이어 잡고 원을 그리며 풍요를 상징하는 군무여서, 이들 3자는 형태와 기능이 매우 흑사하다.

8. 한국의 제주도에서 돌담장 출입문에 연목개비 3개를 가로질러 주인의 부재 여부를 알리는 정낭과 야쿠티아의 Ahan이 형태와 기능이 매우 흑사하다.

9. 기타, 음식을 먹기전에 그 음식을 조금 떼어 사방에 던지는 고시레가 몽골에서도 동일하고, 한국의 깔점과 유사한 Uzahamyak 점이 야쿠티아에서도 발견되고, 한국과 몽골, 야쿠티아에서 말을 신성하게 여기는 馬信仰이 유사하다.

앞에서 본 한국의 서낭당, 장생, 솟대, 성주, 조왕, 무속, 강강수월래, 정낭 등 한국의 기층문화소는 몽골과 야쿠티아에서도 매우 흑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민속으로 전승되고 있어서, 이들 3지역 민속의 친연현상은 중앙시베리아인 야쿠티아로부터 몽골과 한반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북방민속문화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방민속문화대'를 확장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북방대륙문화대'라 할 수 있다. 민속학 외에 국내의 고고학, 언어학, 역사학 쪽에서도 한반도와 북방대륙 사이의 문화적 상관성이 간간이 논의되어 한반도가 북방대륙문화대 영역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본 친연관계에 있는 한국민속의 맥이 중앙시베리아(야쿠티아)로부터 몽골을 거쳐 한반도로 이어지고, 그런 민속의 맥은 그 민속 속에서 사는 민족(또는 종족)의 이동경로를 따라 운반되어 왔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야쿠티아로부터 몽골을 거쳐 한반도로 이어지는 북방민속문화대가 형성된 것이라 믿는다.

고고학, 언어학, 민족학, 인류학 등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시베리아 지역의 민족 이동이 서아시아의 흑해 주변으로부터 Altai 지역을 거쳐서 중앙시베리아로 들어와 원래부터 중앙시베리아지역에 살던 선(先)주민인 고(古)시베리아족들과 섞이게 되는 한편 그 선주민들은 다시 동시베리아지역으로 분산 이동해서 북쪽의 베링해협으로부터 캄차카반도와 그 남쪽으로 이어지는 동시베리아지역에 퍼져 살고 있는 Chookchee, Koryak, Kamchadal, 등부 Evenky족 등의 고시베리아족(또는 고아시아족)들과 깊은 상관성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중앙시베리아에 퍼져 살고 있는 야쿠티아족도 Turky 지역으로부터 Baikal호를 거쳐 Mongol족, Bulyat족과 접촉하면서 북상하여 대략 10세기경에 예니강 중간에 정착하여 야쿠티아족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민족 이동이 있으면서 중앙시베리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몽골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오는 민족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이 앞에 말한 중앙시베리아로부터 몽골과 한반도로 이어지는 북방민속문화대 내지 북방대륙문화대이고, 이와 아울러 한국어가 Altai계 언어인 것과, 인종학상으로 볼때 중앙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Yakut족, 몽골족, 한민족들이 서로 닮아 외견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몽골계라는 것도 한민족의 북방 남하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라 생각된다.

해양문화 부분유입

1. 중앙시베리아인 야쿠티아, 몽골, 한국 3지역 민속의 친연현상은 북방민속문화대로 볼 수 있고, 이것은 국내의 고고학, 언어학, 역사학적 성과와 절부시켜 학장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북방대륙문화대의 한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2. 북방민속문화대 내지 북방대륙문화대를 통해서 볼 때 한국민속과 한민족의 근원을 중앙시베리아(야쿠티아지역)로부터 몽골, 한반도로 이어지는 민속의 맥과 그 민속을 운반해 온 한민족의 이동 경로를 짚어 볼 수 있다.

3. 한국민속과 한민족의 근원을 중앙시베리아지역으로부터 짚어보는 것은 현재까지 필자의 민속현장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인접학과의 연계에 의한 견해이고, 필자의 민속현장조사 영역이 서시베리아와 서아시아지역으로 연장되면서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북단 Lapp족의 거주 지역과 북극권, 동시베리아지역으로 확장된다면, 필자가 제기한 북방민속문화대 내지 북방대륙문화대는 서아시아·서시베리아 및 동시베리아와 상관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4. 가락국기·탈해신화·탈라개 국신화 등을 통해서 볼 때 한반도 남단에는 남부해양적 문화요소도 부분적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한반도의 문화적 주류는 북방대륙문화대 안에 들면서 그 남단에 남부 해양적 문화요소가 복합되었을 가능성도 시사해 준다.

5. 한반도의 문화적 자성, 진화를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북방민속문화대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이 논고는 민속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제한적 의미에서 한국민속과 한민족의 근원을 중앙시베리아로부터 짚어본 것이다.

6. 북방민속문화대는 솟대류의 경우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일본열도에까지 연장되었던 흔적도 발견된다.

김 태 곤
〈문리대 교수·국문학〉

□무당굿의 연극성

굿은 연극성 띨때 주술 발휘

무당의 묘기는 신성 만나는 표시
요란한 소품은 상징 드라마 구현

인간의 연극적 유산은 샤만의 의식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무당은 산신령과 혼령의 현존과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의상과 소품, 그리고 보방적인 몸짓을 이용한다. 신령들의 극적인 현존과 해학 그리고 공감하는 관객의 도움을 받아 무당은 한 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 문제들이 그 가족에게 일어난 고통을 달래주고자 할 때 연극과 종교 그리고 정신요법(psycho-therapy)은 하나가 된다.

몇몇의 경우에, 한국무당은 신령의 행동을 모방하기 보다는 인간행동을 모방하고 있다. 동해안 별신굿이 벌어지는 마지막날 아침에, 박수무당은 평범한 마을 생활에 회곡적인 기복(起伏)에 직면한 사람들을 소박하지만 강력하게 극화해냄으로써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즐겁게 해 준다. 이러한 소극들은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희랍 비극의 기원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삶의 리듬에의 디오니소스적인 참가를 유도한다.

신령의 현존을 극화 하는데 있어, 무당은 모방적인 몸짓 뿐 아니라 놀라운 묘기를 구사한다. 황해도 무당이 추는 작두춤은 이를 예증한다. 무속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묘기는 영혼을 풀으를게 하기 보다는 정신을 마비시키고 종교적 체험을 가란격이고 유치한 방식으로 어리둥절하게 만들며 격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봉자에게 그러한 묘기는 신성과의 접촉을 가져오는 자유의 신성한 표시가 된다.

굿은 위와 같이 신령의 현존에 직면했을 경우 어리둥절함을 불러 일으키기 보다는 인간 삶에 대한 폭넓은 경이감과 신비감을 자아내며 그러한 방식으로 연극적 공간을 연출할 때 소박한 '원형극'을 넘어서 굿의 가장 풍부한 극적, 종교적 정험을 밝혀한다. 나무 옆 혹은 별신부 초반의 경우에는 해변가에 자리한 서낭당의 신대 앞에서 마을사람들이 원무를 출 때, 이들은 인간 자신들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신령세계와의 조화를 연극적 상징으로 이루어 내고 있다. 동해안 오귀굿의 초반부에서 가족 중 하나가 익사한 집안의 사람들은 신령에게 망자(亡者)를 바다에서 돌려달라고 간청하면서, 의식의 공간을 인간경험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신비감으로 채운다.

학자들은 인류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종교사학이 제공해 주는 다양한 이론적 골격에 비추어 굿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굿의 중요성에 관한 어떠한 연구라도 기복적으로 굿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극적인 몸짓과 이미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죽은 이를 위한 굿은 정기적인 제사를 통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조상의 위치로 망자를 고양시키는데 근본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나는 이러한 굿의 목적을 부정하지 않지만 망자를 위한 굿에 극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상징적인 소품들과 몸짓들을 단순하게 조상의 명부에 올리는 의식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이꽃, 불교적인 종이 초롱, 서울굿에서 저승으로 가는 꽃으로 장식한 가시문 앞에서 추는 바리공주의 우아한 춤, 그리고 '피안'으로 가는 종이배와 오귀굿에서 종이꽃으로 장식한 지팡이로 천을 찢는 것 등은 조상의 의식상의 위치보다는 실존적인 신비와 경탄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의 드라마를 구현하고 있다.

◇한국무당은 신령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다. 사진은 시베리아관 개관식 기념으로 공연된 한국의 굿

다니엘 키스터
〈서강대 교수·영문학〉

신세대 생활삐삐—015나래텔

015나래텔 삐삐
음성사서함 서비스

삐삐 신호는 물론 호출자의 메시지까지 목소리 그대로 전해주는 음성사서함서비스(VMS)—
이제부터 음성사서함서비스도 꼭 015나래텔을 찾아주십시오.
한차원 앞선 015나래텔 음성사서함서비스는 6가지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또한 더욱 편리합니다.

015나래텔 음성사서함서비스—이럴 경우에 매우 편리합니다.
●호출후 즉시 연락을 받지 못하고 타집으로 이동할때
●공중전화등 전화연락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호출할때
●전화통화 필요없이 메시지를 남기고 싶을때
●연인간에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거나 전화로 직접 대화할 수 없는 미묘한 경우에
●아픈 업무로 시리즈 자주 비우는 직장인
●주말시 지도경찰이 남은 업무가 마음에거
●동창회·동문회등 모임이 잦은 이들의 연락을 위해

015나래텔 부가서비스—
기술이 앞서면 이렇게 편리합니다.

부가서비스명칭	서 비 스 내 용
비서업무	재래로 호출이 안될때 1분에서 60분 간격으로 최대 5회 자동반복호출
여행호출	월/금등 특정일자까지 원하는 날짜, 시간에 자동호출해라
지 명 호	비밀번호를 통해 정해진 기상시간, 약속시간에 자동호출
동시호출	전화 한통화로 5명까지 동시호출
반복수신	1일동안 최대 30분 간격으로 3회까지 기밀지 반복호출
기 념 일	생일, 결혼기념일등 최대 10개까지 해당일전날 오전·오후 2번씩 호출
부재중안내	비밀번호를 통해 기밀지가 지정통장등 호출을 받을 수 없을때 지정된 시간 이후에 부재중임을 호출자에게 자동안내

나래이동통신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4-4 TEL 3600-114 FAX : 363-4477

■음성사서함 가입금액
신규가입자 : 기본사용료(9,500원/월)+VMS(4,000원/월)
=13,500원/월
기존가입자 : VMS(4,000원/월) 추가

"015나래텔"은 나래이동통신의 서비스고유 브랜드입니다.
가입시에는 반드시 "015나래텔"인가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가까운 대리점 및 외환은행에서 청약해십시오—

■상담문의 : 고객지원센터 : (02)3633-015 : ARS : (02)363-015
●강남영업소 : (02)5466-015 ●강북영업소 : (02)3600-301/2
●강남A/S센터 : (02)5466-015 ●강북A/S센터 : (02)3600-301/2
●인천A/S센터 : (032)5130-015 ●수원A/S센터 : (0331)389-015

100번 신호보다 한마디 말이 낫다
삐삐—신호만 보내지 말고 메시지도 직접 전하세요